

지금의 서울, 한강유역과 삼국

2017. 9. 14.

여호규 *

1. 한강유역의 지정학적 특성
2. 한강유역에서 백제의 국가적 성장
3. 고구려의 한강유역 진출과 경영
4.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과 경영
5. 한강유역을 둘러싼 각축전의 재점화

1. 한강 유역의 지정학적 특성

1) 한반도에서 한강유역의 지정학적 위상

- 한반도 전체의 중심부에 위치 (조선 후기 산경표 참조).
- 可航水路가 상류까지 발달해 있고, 유역 면적이 가장 넓음.
- => 전통시대 마지막 왕조인 조선이 한강 하류의 漢陽을 도읍으로 삼음.
한강 수로와 서남해 연안 항로를 이용한 漕運體系 확립.

2) 삼국시대 한강유역의 지정학적 위상

- **백제** : 한강 하류를 중심으로 국가적 성장 이룩함.
한강유역은 백제의 중심부로 가장 중요한 지역.
한강유역 상실 이후에도 故土收復 의지를 보유했을 것임.
- **고구려** : 압록강 중상류 일대에서 발흥. 427년 평양으로 천도.
313-314년 낙랑-대방군을 점령한 다음 한강유역과 직접 교류.
한강유역 점령 이후에도 남쪽 변경지대라는 이미지가 강했을 것임.
- **신라** : 한반도 동남쪽인 경주분지 일대에서 발흥
한강유역 점령 이후에도 북방 변경지대라는 이미지가 강했을 것임.
다만 중국왕조와의 교섭을 위해서는 반드시 한강유역을 확보해야 함.
=> 삼국시기에는 각국의 역사적 상황에 따라 지정학적 위상이 달랐음.
각국의 국가적 성장 정도에 따라 한강유역의 위상도 달라지게 됨.

* 한국외대 사학과 교수.

『고구려 초기 정치사 연구』(2014, 신서원) ; 『아 그렇구나 우리역사 3 : 고구려』(2004, 여유당) ; 『고구려 성』 1-2(1998-1999, 국방군사연구소)

2. 한강유역에서 백제의 국가적 성장

1) 백제의 국가적 성장과 한강유역의 지정학적 위상 변화

- 1-3세기 중반 : 백제국이 한강 하류 일대를 중심으로 성장.
- 3세기 후반 - 4세기 전반 : 서진의 동방정책 변화 및 낙랑·대방군의 소멸 등 국제정세 변화를 활용해 백제국이 주변의 마한 소국을 병탄하며 '백제'라는 영역국가로 발돋움함.
- <삼국사기> 온조왕 13년조의 강역구획 기사는 이때의 상황 반영.
북쪽은 패하(溟河: 예성강), 남쪽은 웅천(熊川: 안성천), 서쪽은 바다, 동쪽은 주양(走壤: 춘천) => 한강유역이 백제 영역의 중심부로 자리잡음.
- 백제는 4세기 후반에 남쪽으로 금강-영산강 유역으로 진출하는 한편, 북쪽으로 서북한 방면 진출을 시도해 371년에는 평양성까지 진격함.
- 백제는 영역확장을 바탕으로 중국대륙에서 한반도 서남해안을 거쳐 일본열도에 이르는 해상교역로를 복원하고, 백제-가야-왜 연합세력 형성.

2) 백제 도성의 공간구성과 한강유역에 대한 인식변천

- 백제 도성 유적 : 풍납토성 내부 환호집락, 풍납토성, 몽촌토성
- 마한 소국인 백제국의 국읍 : 풍납토성 내부의 환호 집락으로 추정.
- 3세기 후반 이후 : 백제국이 '백제'라는 영역국가로 발돋움.
책계왕 즉위년(286년)의 위례성 수리, 아차성과 사성(蛇城) 축조 기사
위례성 수리 : 풍납토성 축조, 아차성 : 아차산 일대, 사성 : 삼성동 토성
=> 풍납토성을 중심으로 한강 하류와 상류 방면에 대한 방어체계 확립.
아차성과 사성의 위치상 한강 수로에 중점을 둔 방어체계.
=> 4세기 후반에 백제가 중국대륙-서남해안-일본열도 해상교역로를 복원함에 따라 한강하류 일대가 국제교류의 거점으로 부상하고, 풍납토성은 국제도시로 발돋움. 풍납토성 출토 외래계 유물.
- 고구려와의 각축전이 치열해지자 371년에 한산(漢山)을 임시 왕성으로 삼게 됨. 이때부터 한성(漢城)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 이 한성은 지금의 몽촌토성으로 추정됨. 광개토왕의 침공을 받아 아신왕대에 고구려에 항복한 다음 다시 위례성=풍납토성으로 되돌아온 것으로 추정됨.
=> 평상시 거점성(풍납토성) + 비상시 군사방어성(몽촌토성)의 도성체계
475년 개로왕대의 大城(북성: 풍납토성) + 王城(남성: 몽촌토성)
475년에도 백제 왕성에 대한 공식 명칭은 위례성(慰禮城)
=> 백제가 지방통치조직을 정비함에 따라 도성의 중심성과 국제성 제고.
cf. 풍납토성 경당지구의 우물(206호 유구)에서 출토된 전국 각지의 토기.
<광개토왕릉비>에 따르면 영락6년(396년)에 고구려가 한강하류 일대를 점령하고, 한강을 건너 백제 도성을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사가 <삼국사기>에는 전혀 나오지 않음. 백제측의 의도적인 누락 가능성.
=> 475년 한성 함락 이후 백제는 한강유역을 상실함. 이에 따라 백제인들 사이에는 한강유역에 대한 고토수복의식이 형성되고, 이것이 <삼국사기> 웅진-사비기의 한강-예성강 유역 영유기사의 형태로 남게 됨. 또한 551년 한강유역 점령도 고토수복이라는 관점에서 기술.

是歲, 百濟聖明王, 親率衆及二國兵[二國謂新羅任那也.], 往伐高麗, 獲漢城之地. 又進軍討平壤. 凡六郡之地, 遂復故地. (《日本書紀》 권19 흠명천황 12년 시세조)

是歲, 百濟棄漢城與平壤. 新羅因此入居漢城. 今新羅之牛頭方·尼彌方也.[地名, 未詳.] (《日本書紀》 권19 흠명천황 13년 시세조)

=> 한강유역에 대한 고토수복의식은 백제가 551년 신라와 연합해 한강유역을 점령하는 원동력을 제공했지만, 이후 고구려-신라의 밀약에 따라 한강유역을 상실한 이후 백제의 대외정책을 질곡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3. 고구려의 한강유역 진출과 경영

1) 고구려의 한강유역 진출과정

- 370-380년대 : 멸악산맥을 넘나들며 백제와 치열한 각축전 전개, 371년에는 백제가 고구려 평양성까지 진격. 380년대에 접어들면서 예성강 상류일대는 점차 고구려의 영역으로 편입됨. -> 백제가 청목령에 성곽 축조(373년), 청목령-팔압성-서쪽 바다에 관방시설 축조(386년).

- **광개토왕대** : 고구려는 한강 유역의 백제 도성까지 진공했다가 백제의 항복을 받은 다음 橫岳(북한산) 남쪽의 한강 하류일대에서 철군했고, 그 이후 양국의 국경선은 임진강-한강 분수령을 따라 형성됨.

- **5세기 전반 영서지역** : 광개토왕대에는 北漢江 수계까지 진출했을 것으로 보임. 5세기 중반에는 남한강 중상류까지 진출(450년 고구려 장수가 남한강 수계와 연결되는 悉直에서 수렵을 행함 / 468년에는 말갈병 1만을 동원하여 신라의 悉直城을 함락시킴).

=> 5세기 전반에 고구려와 신라가 영서지역-죽령 루트(중앙고속도로)를 통해 활발하게 교류. 당시 신라는 고구려에 예속된 상태였고, 신라에는 고구려 군대도 주둔.

- **475년 백제의 한성 함락과 한강유역 장악** : 5세기 중반에 들면서 신라가 고구려의 세력권으로부터 이탈하여 백제와의 동맹 강화. 이에 고구려는 462년 북위와의 관계를 개선해 서북 국경지대를 안정시킨 다음 475년에 백제의 도성(위례성, 한성)을 함락시킴. 다만 문주왕 즉위년조에는 고구려 군대가 한성을 함락시킨 다음 퇴각한 것으로 나옴. 이에 고구려가 한강유역을 완전히 점령하지 못했다고도 파악하기도 함.

- **475-551년 백제의 한강-예성강 영유기사** : 궁정설 / 부정설, 529년 五谷城 전투 기사를 제외하면 모두 4세기까지의 <삼국사기> 백제본기 기사와 중복, 초기기사를 중복 게재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음. 배경은?

- 475-551년 고구려와 백제의 대치 상황

① 차령산맥 북쪽의 천안-온양 일대를 경계로 백제와 대치(476·490년), 천안 일대를 석권한 다음(512년), 예산 일대로 진격했으나 실패함(548년).

② 달천을 따라 괴산까지 진출한 다음 신라와 대치(494년), 음성-증평이나 진천을 경유해(487년) 금강 유역까지 진격했다가 백제의 반격으로 미호천 일대(증평 도안)로 퇴각. 550년경까지 미호천 일대에서 백제와 대치. 고구려와 백제는 차령산맥 북쪽의 천안 및 금강 지류인 미호천 일대에서 대치, 고구려가 지속적으로 한강유역을 영유한 것으로 보아야 함.

=> 고구려는 100여년의 남진정책을 통해 한강유역을 장악해 백제와 차령산맥, 신라와 소백산맥 일대에서 대치. 고구려 입장에서 본다면 한강유역은 남쪽 변경지대. 서북방과 남방에서 동시에 위기가 발생한다면 서북방 국경지대를 방어하기 위해 남방을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임.

2) 고구려의 한강유역 경영양상

* 고구려의 한강유역 경영과 관련한 주요 쟁점

- 백제의 한강유역 수복설 -> 한강유역 경영 자체가 성립되지 않음.
- 대규모 성곽 미확인, 보루성만 확인 -> 전면 지배 상정 불가.
- <삼국사기> 한주-삭주-명주조의 본고구려지명 -> 영역 지배.

* 고구려의 한강영유와 관련된 유적

- 아찬산 일대의 보루성
- 몽촌토성에 확인된 고구려 유적과 유물 : 몽촌토성 재활용.
cf. 풍납토성은 폐기, 한강 북안에 풍납토성에 상응하는 남평양 건설.
- 성곽-취락 : 대전 월평산성-월평동 유적, 청원 남성골산성, 진천 대모산성과 송두리유적, 청주 정북동토성, 연기 나성유적, 안성 도기동유적
- 고분 유적 : 성남 판교동고분군, 용인 보정동고분군, 화성 청계동고분군, 충주 두정리고분군, 충주 단월동고분군

* 고구려의 지방제도 정비양상

- <삼국사기> 지리2의 漢州 가운데 한강 남쪽에 위치한 군현의 본고구려지명에서 고구려계 지명어미인 奴, 忽 등을 가진 지명 다수 확인.
- 신라시기 성곽에서 출토된 '본고구려' 군현명이 새겨진 명문기와: '馬忽'(포천 반월산성), '仍伐內'(서울 호암산성), '主夫吐'(인천 계양산성)
- <충주고구려비>의 '古牟婁城守事'
- <삼국사기> 진흥왕 12년조 : 王命居柒夫等侵高句麗, 乘勝取十郡.
<삼국사기> 거칠부전 : 居柒夫等乘勝取竹嶺以外高峴以內十郡.
<일본서기> 흠명기 12년 : 獲漢城之地. 又進軍討平壤. 凡六郡之地也.
- => 고구려가 한강유역 등 중부지역을 고구려식 지명의 행정구역으로 편제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여 다스림. 551년 신라와 백제가 한강 중상류(10郡)나 한강 하류(6郡) 방면을 장악하던 과정을 참조하면, 최소 16개 이상의 행정구역(郡에 해당, 守事 파견?)을 설치했을 것으로 추정됨.
- => '군(郡)'에 해당하는 행정구역보다 상위 광역행정구역을 설치했는지 명확하지 않음. 반면 남한강변의 국원성(國原城) 및 한강 하류의 남평양(南平壤: 광진구 일대)처럼 한강 수로를 이용할 수 있는 지점에 평지 거점성을 구축함. 고구려의 한강유역 경영은 別都에 해당하는 국원성과 남평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음.

4.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과 경영

1)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과정

* 5세기 중반의 양상

-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은 고구려-백제의 각축전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진행됨. 5세기 중반경 신라가 고구려 세력권으로부터 이탈해 백제와의 동맹을 강화해나가자, 고구려는 462년 북위와의 관계를 개선한 다음 남진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함.
- 이로 인해 백제는 고구려의 공격 위협에 노출되고, 신라와의 동맹을 더욱 강화함. 신라도 고구려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백제와의 동맹을 더욱 강화함. 이때부터 신라는 소백산맥 외곽으로 진출하기 시작함.
- 신라가 소백산맥 외곽 진출 루트는 크게 화령 루트와 죽령 루트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화령루트를 통해 소백산맥 외곽으로 진출함.

* 화령(상주-보은) 루트를 통한 금강유역 진출

- 신라는 470년에 삼년산성(충북 보은)을 축조함. 당시 죽령 루트는 신라와 고구려의 주로 교통로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신라에 대한 고구려의 압박도 주로 죽령 루트를 통해 내려왔을 것임. 이에 신라는 고구려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상주-보은의 화령을 통해 보은지역으로 진출한 다음, 외형상으로는 백제와의 동맹 강화를 위해 삼년산성을 축조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금강유역 진출 교두보를 확보함.
 - 474년에 답달성(상주 화서), 일모성(청원 문의) 등 여러 성곽을 축조하고, 486년에 삼년산성(보은)-굴산성(옥천 청성)을 개축하고, 도나성(刀那城: 상주 모서)을 축조하는 등 소백산맥 서쪽 일대의 군사방어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함. 그리고 고구려가 487년 미호천 일대를 장악한 다음, 494년에 남한강 지류인 달천을 따라 薩水之原(괴산군 청천면)으로 진격하자, 犬牙城(보은 북부지역) 일대에서 고구려의 남진을 저지함.
 - 550년 1월 백제가 고구려의 道薩城(중평군 도안)을 함락하고, 3월에는 고구려가 백제의 금현성(연기 전의)을 공격하는 등 미호천 일대에서 고구려와 백제의 공방전이 치열해짐. 이에 신라가 양국의 공방전을 틈타 두 성을 모두 공취하고, 미호천 곧 청주 일대를 장악함. 백제로서는 동맹국인 신라의 행위가 못마땅했지만, 한강유역 공격을 앞둔 상황에서 신라를 공격하기도 힘들었을 것임.
- => 551년 3월에 진흥왕이 낭성(娘城: 청주 상당산성 일대)을 순행함. 신라가 한강유역에 앞서 미호천 일대를 장악함. 이는 한강유역 전체를 장악하고, 554년 관산성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

* 태백산맥-죽령 루트를 통한 한강유역 진출

- 고구려가 481년에 소백산맥을 넘어 신라의 도성 북쪽까지 공격했으나, 481년과 496년에 泥河 부근의 전투에서 잇따라 패배함. 이에 신라는 悉直-泥河 일대를 영역으로 편입한 다음, 500년에는 왕이 영주까지 순행하고, 504-505년에는 悉直 남쪽에 성곽을 축조하고 悉直에 卍를 설치하여 軍主를 파견함. 아울러 신라는 동해안을 따라 강릉 방면으로 북상하는 한편, 삼척-강릉 일대에서 태백산맥을 넘어 남한강 상류로 진출하기 시작함(영월 왕검성, 평창 노성산성, 영춘 온달산성 등 신라계 산성).
- <단양적성비>가 550년 이전에 건립된 것으로 보아 550년경에는 죽령을 넘어 단양 등 남한강 상류 일대를 장악한 것으로 보임.

*** 한강유역 전체 장악**

- 신라는 550년에 이미 미호천 유역의 청주, 남한강 상류의 단양 일대를 장악했음.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551년 7월에는 백제와 연합해 한강유역을 기습 공격했는데, 이때 한강 중상류 일대의 10군을 장악함.
- 552년 신라가 고구려의 요청을 받아들여 밀약을 맺고, 백제와의 동맹을 파기함. 이를 바탕으로 553년 7월에 신라는 백제가 장악했던 한강 하류의 한성 지역을 장악함. 이해 10월에 고구려도 서해안 루트를 따라 웅천성[안성천 일대]까지 진격하여 백제를 공격했으나 패배함. 이에 고구려는 임진강-한강 분수령 북쪽으로 퇴각.
- 신라는 554년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을 전사시킨 다음, 555년에 진흥왕이 북한산 일대 순행(<북한산순수비>). 556년에는 고구려로부터 함흥-원산만 일대를 양도받아 비열홀주 설치(<마운령순수비> <황초령순수비>).
=> 신라와 고구려의 국경선은 임진강-북한강 분수령을 따라 형성됨.
동해안 방면의 국경은 마운령-황초령-낭림산맥 남단을 따라 형성.

2) 신라의 한강유역 경영과 국제위상의 격상

*** 신라의 한강유역 경영**

- 553년 7월 : 한강 중상류의 10군 + 한강 하류의 6군 지역에 新州를 설치하고, 金武力을 군주로 삼음. 557년에 신주의 명칭을 ‘北漢山州’로 개칭함. ‘北漢山’은 한강 북쪽의 아차산성으로 추정됨. 신라가 한강유역 전체를 장악한 다음, 고구려가 남평양을 건설했던 아차산 일대에 新州의 치소를 설치하고 한강유역 일대를 다스렸음. 568년에 新州의 치소를 남천(南川: 경기도 이천)으로 옮겼다가 604년에 漢山으로 옮김.
=> 아차산성은 한강 북안에 위치해 고구려의 공격을 받을 경우 방어상 취약할 수 있음. 이에 한강 남쪽에 北漢山城에 대비되는 ‘南漢城(이성산성)’을 축조해 방어상의 취약점을 보완함.
cf. 하남 이성산성에서 발견된 ‘南漢城道使’ 목간(608년)
=> 州治에는 軍主를 파견해 휘하 軍團에 대한 군사 지휘를 총괄하도록 하는 한편, 州 아래의 郡과 城(村)에 당주, 나두, 도사 등을 파견해 조세수취, 병력동원, 요역동원 등의 지방행정업무를 집행하도록 함.
=> 新州의 州治인 北漢山城(아차산성)이나 南川(이천)은 모두 한강 중하류에 위치했기 때문에 新州에서 수취한 물자를 한강 수로를 이용해 신라 도성으로 운송하기 힘들었음. 이에 소백산맥 육상교통로와 한강 수로의 結節點인 충주에 國原小京을 설치하고(557년), 도성의 貴戚 子弟와 6部 豪民을 이주시켜 거점을 구축함(558년). 신라가 한강유역을 점령한 다음 군사 기지와 경제 거점을 분리 운영함.

*** 신라의 국제적 위상 격상**

- 한강유역 장악 이전에 신라는 고구려를 통해 전진에 사신을 파견하거나(371년과 381년), 백제를 통해 남중국의 양에 사신을 파견했음(521년). 신라 자국의 힘으로 국제 외교무대에 등장한 경험이 없었음.
- 564년에는 북제, 567년에는 남중국의 진에 직접 사신 파견. 특히 565년에는 북제로부터 종래 고구려왕에게만 수여했던 ‘동이교위(東夷校尉)’라는 책봉호를 수여받음.
=> 신라가 한강유역을 장악한 다음 중국왕조와 활발하게 외교교섭을 전개하며 국제적 위상을 격상시켜 나갔음.

5. 한강유역을 둘러싼 각축전의 재점화

- 6세기 중반 이후 고구려와 신라는 약 50여 년 간 휴전 상태 유지.
백제와 신라도 소백산맥 일대에서 간헐적으로 충돌하는 정도였음.
- 589년 수 중국대륙 재통일 이후, 고구려는 처음에는 외교교섭을 통해 수로부터 안위를 보장받으려고 함. 그렇지만 수의 강경한 대외정책으로 인해 외교교섭을 통한 안위 보장이 힘들어지자, 고구려는 603년 신라의 북한산성 공격을 시발로 한강유역을 점령해 종전 세력권을 회복하고, 수에 맞서는 대외정책을 추진하게 됨. 이에 따라 50여 년 간 휴전상태였던 고구려와 신라의 각축전이 재점화됨.
- 백제도 7세기에 접어들면서 소백산맥 일대에서 신라에 대한 공격을 강화함. 이로 인해 신라는 점차 고구려와 백제 양국으로부터 협공을 받는 처지로 몰리게 됨. 실제 640년대에 고구려와 백제는 신라의 대중국 교섭창구인 당항성 협공을 도모하기도 함.
- 이에 신라는 637년에 新州를 한산주(한강 중하류 지역)와 우두주(牛頭州=首若州: 영서지역)으로 분리하여 고구려의 남진에 대응하는 한편, 다양한 외교적 방안을 모색하게 됨. 이러한 신라의 외교적 대응책이 당의 동방정책과 맞물리면서 삼국의 각축전은 동아시아 국제전으로 비화하고, 마침내 삼국통일전쟁으로 전환되기에 이룸.

※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총 30권) 인터넷 열람 주소(e-book)

▶ http://www.gb.go.kr/open_silguk/silla_history/main.do ◀

[참고문헌]

- 경상북도, 2016 『신라사대계』(1~30권)
한국고대사학회, 2017 『우리시대의 한국고대사 1, 2』. 주류성
젊은역사학자모임, 2017 『사이비역사와 한국고대사』, 역사비평사
한국역사연구회, 2016 『한국고대사산책』, 역사비평사
광진문화원, 2015 『삼국 한강』
황보경, 2016 『삼국과 한강』 주류성
임기환, 2002 「고구려 신라의 한강유역 경영과 서울」 『서울학연구』 18
노태돈, 2005 「고구려의 한성지역 병탄과 그 지배 양태」 『향토서울』 66
주보돈, 2006 「5-6세기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 『북방사논총』 11
전덕재, 2009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과 지배방식」 『향토서울』 7
노중국, 2012 「신라 진흥왕의 한강유역 점령과 순수」 『향토서울』 81
여호규, 2013 「5세기 후반-6세기 중엽 고구려와 백제의 국경변천」 『백제문화』 48

<MEMO>

<절취선>

2017년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시민강좌 <시민 참여> 질문지

- *강의 내용을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여기에 질문 내용을 작성해 주십시오.
- *질문지는 강사의 강의를 끝난 다음, 중간 휴식시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